



해외보험리포트

말레이시아

이승주, 장윤미

Executive Summary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 잡아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90년대 후반까지 경제 고성장을 구가 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낮은 임금, 장기 집권 및 부정부패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짐.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아시아 내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경제 프레임워크인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고,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보험 부분의 핵심 목표로 둬. 보험산업 육성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이 포함됨.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31위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 밀도는 약 590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업이 3/4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이슬람금융에 기반한 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① 전통형 생명보험, ② 가족타카풀(생명보험), ③ 전통형 손해보험, ④ 일반타카풀(손해보험)로 구분됨. 전통형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시장 지배력, 대표 채널로 각각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외국계(외국계 및 현지), 보험설계사 및 방카슈랑스(보험설계사)를 들 수 있음. 특히,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에 주목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

○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¹⁾

- 입헌군주제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3개 연방 직할지(K, 라부안, 푸트라자야) 아래 13개의 연방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왕은 말레이계 9개 주의 술탄 가운데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 연방정부의 수장은 총리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고 입법부는 상원(선발의회)과 하원(국민대표의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됨
 - 말레이시아는 두 가지 유형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샤리아(Sharia)법이 존재하며, 샤리아법은 각 주 차원에서 결정됨
-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70.1%, 22.6%,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는 말레이시아어, 상용어는 영어이며, 그 밖에 중국어, 타밀어를 사용함
 - 국교는 이슬람교(63.5%)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불교(18.7%), 기독교(9.1%), 힌두교(6.1%)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함
-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51.4%, 산업 39.6%, 농업 9%로 이루어져 있으며,²⁾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어 에너지 산업 또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비스 부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중 전자 및 전기(E&E), 화학 및 화학제품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순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및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산업은 말레이시아 GDP의 20%를 차지함
- 2022년 기준 1인당 GDP는 11,972달러로, 신흥 ASEAN 5³⁾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연간 GDP 성장률 8.7%를 기록하는 등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높은 경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말레이시아의 최저 임금은 한 달 기준 1,500링깃(335달러) 수준으로, 1인당 GDP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 두뇌 유출 및 중진국 함정 문제를 안고 있음⁴⁾

1) KOTRA(2023), 국가지역정보-말레이시아

2) ADB Data Library(2023), Malaysia key indicators

3) ASEAN 5 국가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칭함

4)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ASEAN 5 국가의 월 최저 임금은 태국 277달러, 인도네시아 300달러, 베트남 200달러, 필리핀 304달러이나,

○ 말레이시아의 중위연령은 30.3세로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2030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고령화율은 7.2%이지만, 2030년 해당 비율은 15.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어, 가까운 미래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⁵⁾
 - 말레이시아의 중위연령은 30.3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70.1%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임
 - 다만 2021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75.6세로, 50년 전인 63.6세보다 12년이 늘어났으며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젊은 인구 비율 및 전체 인구 증가율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⁶⁾
 - 말레이시아의 노년부양비⁷⁾는 1970년대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해당 비율은 2000년대 급속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0.7명을 기록하였음(한국은 2022년 기준 24.6명)⁸⁾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1차 계획(1966~1970)⁹⁾에서 가족계획(산아제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제4차 계획(1981~1985)부터는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했으며, 최근 인구정책은 노인복지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
 - 정부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국민가족계획법(National Family Planning Act No. 42)을 통해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는 1966년 36.7명에서 1985년 31.5명으로 감소함¹⁰⁾
 - 그러나 1984년 제4차 계획 추진 중 인구 규모와 경제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1984년 1,260만 명에서 2100년 7천만 인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인구의 양적 성장에 주목함
 - 1992년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NPFDB) 인구정책 평가 결과, 7천만 인구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예상보다 56년이나 빠른 2014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2.1명)에 도달하였음
 - 이후 정부는 인구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였으며, 1995년 노인을 위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for the Elderly)을 시작으로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등 노인복지 제고에 집중함¹¹⁾

해당 국가의 1인당 GDP는 말레이시아의 절반 혹은 절반 이하에 불과함

5) New Straits Times(2022), "Life expectancy in Malaysia rises by 12 years, ageing population by 2030"

6) Universiti Putra Malaysia(2018), "Demography & Population Ageing in Malaysia: Interstate Comparisons and Analysis"

7)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8) Fred Economic data(2022), Age Dependency Ratio: Older Dependents to Working-Age Population for Malaysia

9)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방 이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및 발표해왔으며, 제1차 발전계획(1966~1970)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은 2021년 이고, 이에 해당하는 제12차 발전계획(2021~2025)을 발표한 바 있음

10) Malaysia Population Research, "Evolution of Population Policy"

11) Chang Foo Chung, Khairul Hanim Pazim, Kasim Mansur(2020), "Ageing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for Older People in Malaysia"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3414128_Ageing_Population_Policies_and_Programmes_for_Older_People_in_Malaysia

〈표 1〉 말레이시아 주요 국가 지표¹⁾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33만 252km ² (한반도의 1.3배)	인구	약 3,394만 명
생산가능인구	1,731만 명	고령화 비율	8%
소비자물가상승률	3.4%	경제성장률	8.7%
GDP	4,063억 달러	1인당 GDP	11,972달러
기대 수명(남)	73세	기대 수명(여)	77세

주: 1) 기대 수명(2021년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2022년 기준임
 자료: The World Bank(2023), "World Bank Open Data - Malaysia"

○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¹²⁾ 산업은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의 핵심 동인임

-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수쿠크(Sukuk)¹³⁾ 발행국으로 세계 무슬림 인구의 2%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슬람금융 규모는 세계 이슬람금융 자산의 20%를 차지함¹⁴⁾
 - 1984년 최초의 타카ful(Takaful) 사업자인 Syarikat Takaful Malaysia Bhd가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으며 1990년 최초로 Shell Malaysia가 수쿠크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 2022년 기준 세계 이슬람금융 자산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 2025년 4.9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슬람 경제는 2025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여, 2.8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¹⁵⁾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성장률은 13%를 기록하였으며 이슬람금융이 전체 은행 대출의 41%, 현지 채권 발행 중 수쿠크 발행 비율은 64%에 달하였음¹⁶⁾
- 동 산업의 발전은 이슬람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 적절한 규제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개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1994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이슬람 은행 간 단기 자금을 조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인 이슬람 화폐 시장을 조성하여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말레이시아는 2013년 이슬람금융서비스법(The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을 제정하여 이슬람금융 상품의 샤리아 적합성, 지배구조 등 기준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또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2005년 이슬람금융 전문 대학인 International Centre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INCEIF)를 설립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2) 이슬람금융이란 무슬림을 위해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해석 과정을 통해 개발된 금융 상품 및 시장을 의미하며, 주류, 담배, 도박 등 반교리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함

13) 수쿠크는 이슬람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샤리아 율법상 이자수익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음

14) World Bank Group(2020), "Malaysia Islamic Finance & Financial Inclusion"

15) Dinar Standard(2022),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2"

16) Fitch Ratings(2023), "Malaysia's Islamic Financing Growth to Continue Outperforming Conventional Banks"

2. 경제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방 시점부터 현재까지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경 제정책, 국가개발정책, 국가비전정책, 경제변화프로그램 등 장기 정책을 펼쳐왔음

- 말레이시아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농업 및 광업 산업 위주의 개발 정책을 수립했으나 이후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산업을 거쳐 자동차 제조업 및 관광·서비스업, IT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음
 - 말라야 계획은 1963년 말레이시아 건국 이전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1·2차 계획에 그침
- 이와 더불어 1971~1990년 신경제정책(NEP), 1991~2000년 국가개발정책(NDP), 2001~2010년의 국가비전정책(NVP), 2011~2020년 신경제모델(NEM)을 통해 부를 재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
 - NEP 및 NDP의 핵심은 중국계에게 치우쳐 있던 부를 재분배하기 위함으로, 말레이시아 원주민인 부미 푸트라(Bumiputra)에게 경제 특혜를 주었으며 NVP 추진 이래로 '선진국 진입'이 주목표로 자리잡음

〈표 2〉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정책 변천

차수	시기	경제 상황 및 주요 정책	정책 주요 목표
1차	1956~1960 (말라야)	영국으로부터의 해방, 세계경기침체	• 농촌 및 고무 산업 개발 • 안보 강화
2차	1961~1965 (말라야)	말레이시아 수립, 싱가포르 분리 독립	• 농촌 개발 • 고용 창출 • 경제성장 및 다각화
1차	1966~1970	5. 13 사태로 인한 인종(말레이인-중국인) 간 갈등 심화	• 보편적 복지 확립 • 소득 수준 제고 • 고용 창출
2차	1971~1975	1차 오일쇼크, 신경제정책(NEP) (1971~1990) 추진,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 설립	• 사회(인종 간의) 통합 • 빈곤 퇴치 • 사회구조 재편
3차	1976~1980	2차 오일쇼크, NEP 2단계	* 2차 계획과 동일
4차	1981~1985	원자재(주석 및 고무) 가격 하락	* 2차 계획과 동일
5차	1986~1990	팜유 가격 하락, 엔고 현상에 기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증가	•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부채 증가 극복
6차	1991~1995	NEP에 이은 국가 개발 정책 추진(NDP)(1991~2000) 추진	• 1985~1986년 경기침체 극복 및 고도 경제성장 유지
7차	1996~2000	아시아 경제 위기(1997~1998), NDP 2단계	• 전 인종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 사회 평등 달성
8차	2001~2005	국가비전정책(NVP)(2001~2010) 추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추진	• 2020 국가 비전 확립(인프라 구축 및 사회 부조 강화) •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표 2〉 계속

차수	시기	경제 상황 및 주요 정책	정책 주요 목표
9차	2006~2010	글로벌 금융 위기, NVP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제고 •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10차	2011~2015	경제변화프로그램(ETP)(2010~2020)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소득 경제 구조로의 전환
11차	2016~2020	미래 경제 발전 강국으로서 ASEAN 집중 확대, ETP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포용성 강화 •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자본 개발 •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지닌 녹색 성장 추구
12차	2021~2025	공동번영 비전 2030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확장

자료: 아태 에너지포털(www.policy.asiapacificenergy.org); Perdana Leadership Foundation(www.perdana.org.my)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9%대 고성장 달성과 더불어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 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성장동력이 부족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됨¹⁷⁾

- 말레이시아는 1970~1990년대 중반까지 농업 및 광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제조업 위주의 구조 전환, 전자 및 수출 지향 산업 집중 투자를 통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8%대의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음
 - 고도성장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 결속력을 제고하고 금융 제도 규제 완화 및 자유화와 맞물린 경제 다각화는 말레이시아를 중등소득 이머징마켓(Middle-income emerging market)으로 변화시킴
- 말레이시아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는데, 1997년 긴축금융정책을 거쳐 1998년 초 경기부양 및 금리인하, 1998년 말 자본유출 봉쇄를 위한 자본통제를 실시하였음
 - IMF의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내적 요인 제거 및 예방에 집중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 투기자본 유출을 위기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대외 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함¹⁸⁾
- 2010년 1인당 GDP 1만 달러에 진입하였으나, 2022년 11,972달러로 12년째 1만 달러에 정체된 상태인데 장기집권과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부족 현상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¹⁹⁾
 - 말레이시아에서는 장기집권층의 부정부패, 낮은 인건비로 인한 두뇌 유출 현상, 친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한 인종 차별 문제 등이 경제성장을 늦추는 요인으로 자리잡음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동아시아 내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6대 핵심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²⁰⁾를 추진 중임²¹⁾

17) IMF(2001), "Malaysia: From Crisis to Recovery"

18) 이규선(2008),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비교: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19) KDB미래전략연구소(2019), 「제2장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정책과 한·말레이시아 협력 확대 방안」

20) MADANI는 6대 핵심 가치를 말레이시아 단어로 축약한 용어로, 단어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keMampanan(지속가능성), ② kesjAhteraan(번영), ③ Daya cipta(혁신), ④ hormAt(존중), ⑤ keyakiNan(신뢰), ⑥ lhsan(연대)

21) KOTRA 해외시장 뉴스(2023), "이코노미 마다니: 말레이시아 경제 프레임워크 소개"

- 이코노미 마다나는 학교, 진료소 등 기본 인프라 개선, 사회 급부 확대를 통한 국민층 퇴치를 단기 극복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 과제로서 10년 내 달성할 7대 중간 목표를 설정함
 - 7대 중간 목표는 ① 세계 30대 경제대국 진입 ②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12위권 진입 ③ 전체 소득 대비 노동 소득 45% 달성 ④ 여성의 노동 참여율 60%까지 확대 ⑤ 인력개발지수(HDI) 25위권 진입 ⑥ 부패인식지수 25위권 진입 ⑦ 재정 적자율 3% 이하 유지 및 지속가능성 지향임
- 동 프레임워크는 ‘아시아 경제 선도를 위한 이니셔티브’ 및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목표에 해당하는 정책을 소개함
 - ‘아시아 경제 선도’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통합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슬람 경제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이 포함됨
 -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는 근로임금 인상, 평등(성별, 인종, 종교 등) 정책, 사회보장 확대, 의료, 교육 및 주택개혁, 기본 시설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코노미 마다나는 향후 공표될 국가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 등 후속 개혁안의 정책적 토대가 될 예정임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말레이시아의 보험법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법안 발의안 초안을 내각에 전달하여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법무부(Attorney-general's office)에 법안 발의안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음
 - 내각에서 승인된 보험법안은 상원(Dewan Negara) 및 하원(Dewan Rakyat)으로 구성된 의회가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함
 - 하원에서 1차 독회(First Reading, 법안 소개), 2차 독회(Second Reading, 토의 및 입법 절차 진행여부 표결), 3차 독회(Third Reading, 표결 승인)를 거치고 상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음
 -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66조 4항에 의거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정식 법으로 채택됨
 - 국왕은 30일 이내에 제출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해진 시일 내에 국왕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시 법으로 채택되며, 해당 법은 정부 간행물에 출간되어 공포되기 이전에는 효력을 지니지 않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1966년 일반 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법과 1984년 이슬람 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타카ful(Takaful)법이 시행되었으며, 1990년부터 역외 금융센터 라부안(Labuan)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도입되었음
 - 2013년 보험법(Insurance Act)은 금융서비스법으로, 타카ful법(Takaful Act)은 이슬람금융서비스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법률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금융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지님
 - 역외 보험법(Offshore Insurance Act)은 2010년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의 보험 부문으로 내용 간소화를 거쳐 통합되었으며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LFSA)이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인가 및 규제를 맡고 있음

〈표 3〉 말레이시아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52년의 근로자 재해 보상법의 후속 개정 법률로, 월 급여가 500링깃 이하(121달러)인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임금과 관계없이 모든 육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됨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라타 소유권법 : 스트라타 소유권법에 따라 아파트, 콘도 등 건물 관리 법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속한 건물의 개별 호실(Unit)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법인에 납부해야 함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 도로운송법에 따라 공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주는 제3자의 신체 상해 배상 책임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이와 더불어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차량은 승객 상해에 대한 무제한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개인 차량은 아직 의무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LFSSA) : 역외 금융기관에 대한 이전의 역외 금융법을 통합하고 간소화한 법률로, 보험법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역외 보험법(Offshore Insurance Act)을 대체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법(PIDM) : 일반 보험 및 타카풀 소비자 예금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자 기존 손해보험회사에만 적용되었던 보험보증제도기금(IGSF)을 타카풀 및 보험급여 보호 제도(TIPS)로 대체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surance (Exemption) (No 2) Order 2012, Insurance (Approved International Marine, Aviation and Transit Insurance Brokers) Regulations 2012 :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 법률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등록, 승인을 받았거나 규제 및 감독하에 있는 보험 중개법인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제시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 말레이시아 밖에서 말레이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중개업을 할 수 있음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서비스법 : 1996년 보험법(Insurance Act) 폐지 이래 이를 대체하는 주요 법률로, (재)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 허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 안정성 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해당 법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금융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지니며, BNM은 금융기관에 사업 행동 표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이슬람금융서비스법 : 1984년 타카풀법(Takaful Act) 폐지 이래 이를 대체하는 주요 법률로, 타카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법과 동일한 목적을 지님 • 라부안 재단 규정 : 중동 및 극동 부유층에 라부안 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2010년의 라부안 재단법(LFA)를 개정한 규정법임 • 라부안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사원 규정법 : 2010년의 라부안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사원법에서 개정된 규정법으로, 사원(Partner)의 역할과 의무,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함 • 라부안 이슬람금융서비스 및 증권법 : 2010년의 라부안 이슬람금융서비스 및 증권법에서 개정된 규정법으로 라부안 내 이슬람금융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간소화하였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카풀 사업자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프로세스 : 타카풀 사업자가 이행하는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CAAP)에 대한 요건을 다루는 법률임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1988년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인가 및 규제를 맡고 있음
 - 중앙은행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업 지배구조 적합성 및 효율성, 소비자 보호와 연관되며 보험회사는 자율 규제의 형식으로 이를 준수함
 - 보험회사는 중앙은행에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감사를 받은 연례보고서와 장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 기관의 동의 없이 배당을 발표할 수 없음
-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LFSSA)에 따라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LFSA)이 라부안 국제비즈니스 금융센터(IBFC)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인가 및 규제를 맡고 있음

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단기 계획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Financial Sector Blue Print 2022~2026)에 따르면, 보험 부문의 핵심 목표는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임²²⁾
 - 중앙은행의 동 청사진은 주요 목표로서 2026년까지 보험 및 타카풀의 보험침투도를 4.8%~5.0% 수준²³⁾으로 향상시키고, 미소보험 및 미소타카풀 개인 가입자 수를 약 두 배로 올리고자 함

〈표 4〉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 목적별 보험산업 육성 방안

주요 목적	활성화 방안
팬데믹 이후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및 타카풀의 무역보험 인수역량을 확대를 위한 무역 신용 보호 보험상품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등 이머징 리스크 관련 국내 전문인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관련 상품 활성화 • 재보험과 재타카풀 지원을 통한 국내 보험시장 내 관리 리스크 다각화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를 통한 재정 회복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대규모 위험(전염병, 홍수 등) 이전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모색 • 소비자 인식 및 이해도 향상, 수요 측면의 데이터 개발을 통해 미소보험 및 미소타카풀시장 지원 •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 추진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자동차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 민간 의료 및 건강 보험, 타카풀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성 제고

²²⁾ Bank Negara Malaysia(2022),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

²³⁾ Swiss Re(2021), "Sigma world insurance in 2021"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보험침투율은 생명보험 3.7%, 손해보험 1.3%임

〈표 4〉 계속

주요 목적	활성화 방안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및 타카풀 대리점, 보험중개인 등 판매 중개인의 행위에 대한 기본 규제 요구사항 검토 • 방카슈랑스 및 방카타카풀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 판매대리점 자격 요건 강화 및 재무설계전문가(FP), 재무설계사(FA) 간 단일 라이선스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강화 • 보험 및 타카풀 중개인을 위한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강화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개선 및 보험료 완전 자유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금융 포용, 경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보험회사 및 디지털 타카풀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무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 홍수 등 물리적 위험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 예측을 통한 보험료 인하 • 지수형 보험 활성화를 통한 보험 및 타카풀 보험금 청구 속도 향상 • ASEAN Green Map 구축 지원

자료: Bank Negara Malaysia(2022),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를 기초로 작성함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말레이시아 내 라이선스는 생명보험 라이선스와 손해보험 라이선스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하위 등급의 라이선스는 존재하지 않음

- 보험산업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은 전문 재보험 법인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공개회사여야 하며, 타카풀 사업자의 경우 이슬람법 준수를 위해 법인 내 샤리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회사법(2016)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개 유한회사여야 하며 타카풀 사업자의 경우 협동조합법(1993)에 따라 협동조합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 상호회사는 허용되지 않음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보험회사의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고 재무부 장관에 사업 라이선스 부여 여부에 대해 권고하며, 라부안에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은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LFS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주회사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를 모두 소유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주주 적합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 법인은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상장보험회사는 최소 1,000명의 주주가 각각 100주 이상의 주식 및 총 상장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수년간 손해보험업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앙은행은 이슬람금융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타카풀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교부를 위해 특별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말레이시아 타카풀 사업자 대부분은 생명보험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 미래에 일반 손해보험업 타카풀 라이선스를 부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예측됨

- 개인상해보험 영역은 손해보험업에 속하지만, 특약 형태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판매에는 생·손보 영역의 구분을 두지 않음

다.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중앙은행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타카풀 사업자 및 재보험회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은 1억 링깃(약 2,400만 달러)임
 -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외국 재보험회사는 예외)는 최저 납입자본금인 1억 링깃 이상의 부채에 대해 초과 자산분을 유지해야 함
-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최저 납입자본금이 상이함

〈표 5〉 라부안 내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종류별 최저 납입자본금

보험회사 종류	최저 납입자본금
생명보험 또는 일반 손해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750만 링깃(약 178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 750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 중 높은 금액
경영 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천만 링깃(약 242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 750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생명보험 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액 3% 중 높은 금액
재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천만 링깃(약 242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에는 천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생명보험 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액 3% 중 높은 금액
전속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30만 링깃(약 7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에는 30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생명보험 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액 3% 중 높은 금액을 납입해야 함
임대캡티브, 셀(Cell) 캡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 링깃(약 12만 달러)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 및 타카풀 사업자를 위한 RBC 제도(RBCT)에 따라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는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Capital Adequacy Ratio; CAR) 130%를 충족하여야 함²⁴⁾
 - 보험회사는 자체 리스크 프로필 반영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130%보다 더 높은 CAR을 목표로 설정해야

24) 자본적정성비율이란 총 가용 자본(Total Available Capital)을 총 위험 자본 요구량(Total Risk Capital Requirement)으로 나눈 값임

하고, 이를 위한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CAAP)가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가 CAR 자체 내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감독 기준인 130%를 넘겼을 경우, 중앙은행은 규제를 통한 개입 정도를 결정하기 이전에 보험회사의 시정계획을 평가함
- CAR 13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사업에 제약을 받거나 구조조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2021년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의 내부 목표 수준은 약 150~250%였으며 총 보험산업 CAR은 221.2%에 달하여 건전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보여줌²⁵⁾

라. 소비자보호 규제

- 금융서비스법 2013 및 이슬람금융서비스법 2013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6년 10월부터 금융서비스 옴부즈만(The Ombudsman for Financial Services; OFS)을 시행함
 - 금융조정국(Financial Mediation Bureau; FMB)의 후신인 OFS는 비영리 단체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으나, OFS에 제기된 분쟁을 중앙은행에서 맡아서 해결하는 것은 아님
 - 소비자는 금융서비스 옴부즈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분쟁 최대 보상금은 25만 링깃(약 6만 달러)이나, 자동차 제3자 재산피해 보상금은 1만 링깃(약 2,400달러)으로 제한되어 있음
 -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분쟁사항을 제기한 뒤 금융서비스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한 번의 추가 조정을 거치나, 그 이후에는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함
 - 2022년 금융서비스 옴부즈만은 총 2,119건의 분쟁 중 1,108건을 해결하였으며 이 중 55%는 상업 및 이슬람 은행 부문의 결제시스템 관련, 45%는 일반 보험 및 타카풀 부문에서 제기된 분쟁이었음²⁶⁾
- 이와 더불어 분쟁과 관련한 직접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으나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는 말레이시아 중재 센터(Malaysian Mediation Centre)가 존재함
 - Mediation Act 2012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재 센터는 변호사 협회의 중재 규칙 및 중재자 행동 강령 규제를 받으며, 대체 분쟁 해결 수단으로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음
- 2023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및 타카풀 대리점 전문성에 관한 정책 문서와 금융 취약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공개 초안을 발표함²⁷⁾
 - 보험 및 타카풀 대리점 전문성(Policy Document on Professionalism of Insurance and Takaful Agents) 정책 문서는 2024년 시행 예정임

²⁵⁾ Insurance Business(2021), "Malaysian insurers' capital reserves adequate, says regulator"

²⁶⁾ The EDGE Malaysia(2023), "Ombudsman for Financial Services resolved 1,108 dispute cases in 2022"

²⁷⁾ Skirine(2023), "Bank Negara issues Policy Document on Professionalism of Insurance and Takaful Agents"; Skirine(2023), "Bank Negara issues Exposure Draft on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Consumers"

- 동 문서는 보험상품 주요 판매 채널인 대리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험회사 내부 거버넌스 구축, 실사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 및 효용 제고가 그 목적임
- 금융 취약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공개 초안(Exposure Draft on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Consumers)은 파트E의 g절을 제외하고 발표 6개월 경과 후 발효될 예정임
 - 동 공개 초안은 금융기관이 금융 취약 소비자(장애인, 노인, 고액채무자, 자연재해 피해자, 외국인 등)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 당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함
 - 해당 초안은 2019년 11월 BNM이 발행한 금융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정책 문서(Policy Document on Fair Treatment of Financial Consumers)²⁸⁾를 기반으로 함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법인은 공공 유한 보험회사 또는 지점 형태로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 부문에서 외국 법인의 활동이 두드러짐
 -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된 외국인 소유의 보험회사와 타카풀 사업자는 제한 사항 없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은행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방카슈랑스 및 방카타카풀 영업도 가능함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말레이시아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100%를 보유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2017년 외국인 지분이 70%를 상회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2018년 6월까지 국내 주주 지분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요청하였음
 - 그러나 다수의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분을 높이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지분 확대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중앙은행은 외국 보험회사에 말레이시아 내 자회사 지분 70% 이상을 매각하거나 B40 국민건강보호기금(B40 Health Protection Fund)에 기부하는 선택권을 주었고 대부분 보험회사는 기금 기부를 선택함
 - B40 국민건강보호기금은 4억 8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약 410만 명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19세부터 55세 사이)으로 5년 동안 의료 보험 및 타카풀을 제공함
 - 싱가포르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Great Eastern이 최소 4억 86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을 약속하여 자회사 지분 축소 의무에서 면제된 바 있음²⁹⁾

²⁸⁾ 동 정책 문서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공정한 대우를 촉진할 목적하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는 허위 광고, 강매, 불완전판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²⁹⁾ Asia Insurance Review(2019), "Malaysia: Fre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launched"

- 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일반 보험회사나 타카풀 사업자 주식의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 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법인은 보험회사와의 협의 이전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14년 중앙은행이 발행한 금융기관의 주주 적합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말레이시아 보험회사는 외부 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경영상 정직성과 평판을 확보하기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말레이시아의 RBC 및 RBCT 프레임워크가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는 규범적이지 않음
 - 대체로 RBC 산출에 적용되는 시장위험자본금(Market Risk Capital Charge; MRCC)을 백분율로 산출 하여 각 위험 자산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함
 - 비상장 벤처캐피털 투자의 경우 35%,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나 G10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20%, 자기 소유 부동산의 경우 8%, 현금 예금의 경우 0.8%임
- RBC 및 RBCT 제도하에서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는 특정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존재함

〈표 6〉 투자 한도가 존재하는 자산 종류와 한도

자산 종류	투자 한도(%)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5
신용등급이 BBB- ~ BBB+ 미만인 채무 증권	5
무담보 금융	5
국가 신용 등급이 말레이시아와 최소한 동등한 관할권에 있는 해외 자산	10
1989년 은행 및 금융기관법, 1983년 이슬람 은행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별 거래상대방 자산	20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에 상장한 개별 거래상대방	10
기타 거래상대방	5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사. 의무보험

- 2019년부터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국(PERKESO)에 등록시키고 업무상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³⁰⁾

- 이전까지 육체노동을 하거나 월 급여 500링깃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만이 근로자 재해보상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보상제도에 가입했으나 가사도우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됨
 - 동 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률은 급여의 약 1.25%로,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월 급여가 4,000링깃 이상인 경우 49.4링깃으로 보험료 상한이 존재함

〈표 7〉 말레이시아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법률, 제도 및 내용
자동차 제3자 상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운송법에 따라 공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주는 제3자의 신체 상해 배상 책임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이와 더불어 버스 및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차량은 승객 상해에 대한 무제한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개인 차량은 아직 의무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 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배해보상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급여가 500링깃 이하(약 121달러)인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임금과 관계없이 모든 육체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됨
전문인(변호사, 보험중개인, 재무설계사 등)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전문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문직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최소 보장 한도는 변호사: 25만 링깃~2백만 링깃(약 6만~48만 달러), 보험중개인: 1백만 링깃(약 24만 달러), 재무설계사: 20만 링깃(약 5만 달러), 라부안 보험중개인: 250만 링깃(약 60만 달러))
의료과실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규제(Medical Regulations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는 연간진료허가서(Annual Practicing Certificate)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료과실보험)에 가입해야 함
MATTA를 통한 여행에 대한 여행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TA 아웃바운드 여행자 보험 보장 제도(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관광여행사 협회(MATTA) 회원 여행사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는 이는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 응급 의료 후송 및 송환, 보증금 환불, 항공권 환불 등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관리 규정 21(Regulation 21 of the Immigration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송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이민국의 보증을 받아야 함. 다만 보험 가입 외에도 은행 보증이나 현금 예치금을 통한 보증도 가능함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주는 소유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아파트 및 콘도 화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라타 소유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콘도 등 건물 관리 법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속한 건물 개별 호실(Unit)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법인에 납부해야 함

30) 세계법제정보센터(2019),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표 7〉 계속

종류	관련 법률, 제도 및 내용
외국인 근로자 의료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입원 및 수술 보험 제도 : 외국인 근로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정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는 120링깃임
항공사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트리올 협약(MC 99) :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여객운송인은 여객의 상해 및 사망, 수하물 훼손 등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III

보험시장 현황

1. 보험시장 구조

- Swiss Re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규모는 전 세계 31위³¹⁾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밀도는 592달러임
 - 2022년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약 200억 달러로 한국의 약 1/10배이며, 보험시장 규모는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19위), 태국(27위) 다음으로 높음
 - 2022년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5.0%(생명보험업 3.7%, 손해보험업 1.3%)이며 이는 주변국가인 태국(5.3%)과 유사한 수치임
 - 2022년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의 보험밀도는 592달러(생명보험업 432달러, 손해보험업 160달러)이며, 이는 한국의 약 1/6배 수준임

〈표 8〉 아시아 주요국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구분	시장규모(백만 달러)	보험침투도(%)	보험밀도(달러)
한국	182,846	11.1	3,541
싱가포르	46,984	9.2	7,563
태국	25,227	5.3	369
말레이시아	20,115	5.0	592
베트남	11,286	2.3	95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3), "sigma 3/2023 - World insurance"

-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보험업은 전통형 보험과 이슬람 율법에 기반하는 타카풀로 구성됨
 -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61.3%³²⁾가 무슬림으로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하여 상부상조와

³¹⁾ Swiss Re(2023), "sigma 3/2023 - World insurance"

³²⁾ The World Factbook(CIA), 최종수정일 2023. 9. 7

각종으로 운영되는 이슬람보험인 타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³³⁾

- 1980년대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보험인 타카풀에 대한 니즈가 커지자 1984년 말레이시아에 타카풀 법이 도입되었고 동일 해에 타카풀 사업자가 최초로 설립됨
- 타카풀은 생명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가족타카풀(Family Takaful)과 손해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일반타카풀(General Takaful)로 나뉨
 -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타카풀 보유국가임³⁴⁾
- 생명보험업은 따라서 전통형 생명보험과 가족타카풀로 구성되며, 손해보험업은 전통형 손해보험과 일반 타카풀로 구성됨

○ 말레이시아는 생명보험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카풀은 전체 보험산업의 약 1/4를 차지함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업이 745억 링깃(약 158억 달러) 손해보험업이 240억 링깃(약 51억 달러)을 기록하며, 생명보험업이 전체 보험산업의 약 3/4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업이 나머지 1/4를 차지함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보험이 755억 링깃(약 160억 달러), 타카풀 산업이 230억 링깃(약 49억 달러)을 기록하며, 전통형 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약 3/4를 차지하고 타카풀이 나머지 1/4를 차지함

〈표 9〉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 권역별 원수보험료(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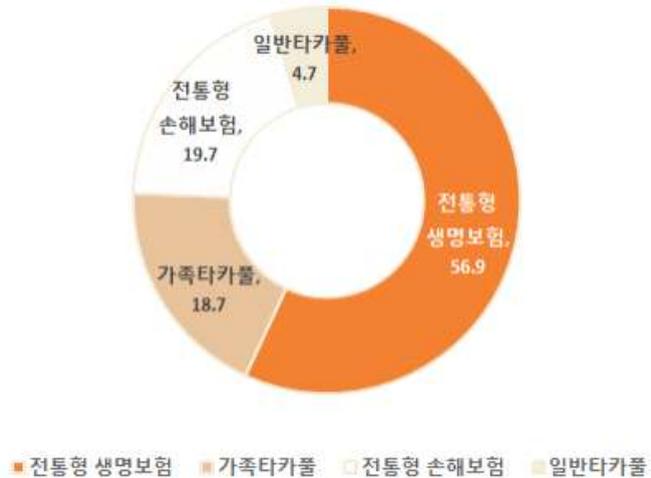
구분		원수보험료(십억 링깃)
생명보험업	전통형 생명보험	56.1
	가족타카풀	18.4
생명보험업 합계		74.5
손해보험업	전통형 손해보험	19.4
	일반타카풀	4.6
손해보험업 합계		24.0

주: 타카풀에서는 보험료의 개념으로 각출금(Contribu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고는 타카풀 총각출금(Gross written contributions)을 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원수보험료로 표현함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33)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투기, 불확실성, 이자 등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전통형 보험 대신 타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34) E&Y(2013), "Global Takaful Insights 2013", p. 7

〈그림 1〉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 권역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OECD에 따르면 2021년 말레이시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55%로 말레이시아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외국계 보험회사 외 주요 현지 보험회사로는 Hong Leong Assurance와 Etiqa Insurance가 있으며 두 보험회사 모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금융기업의 자회사임
 - Hong Leong Assurance는 대기업인 Hong Leong Group이 소유하고 있고 Etiqa Insurance는 말레이시아 금융서비스 그룹인 Malayan Banking(Maybank)의 자회사임

〈표 10〉 말레이시아 내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190	2020	2021	
전체	생명보험업	72	70	73	72	70
	손해보험업	52	53	53	53	55

주: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말레이시아 국내 보험업에서 외국계 기업의 관리하에 있거나 외국계 보험지점·대리점이 인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 외국계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에 적용되는 외국계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는 70%임

- 말레이시아 내 외국계 보험회사(혹은 타카풀 사업자)에 적용되는 지분 보유 한도는 기존에 49%였으나 2009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의 시장자유화 조치로 70%로 확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 재무부 재량으로 7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요 외국계 보험회사의 지분 소유는 100%인 경우가 많음

○ 말레이시아 보험업의 상당 부분은 역외지역인 국제금융센터 라부안(Labuan) 지역에서 인수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에서는 고액자산가(말레이시아인과 재외국민)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통화로 보험인수가 가능함
- 라부안 지역에서 보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금융서비스 기업인 영국령 맨섬 소재의 Hansard Global, RL360 Insurance 혹은 Manulife는 라부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
 - Manulife는 1963년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였고 2017년 라부안 지역에 지점을 설립함
- 라부안 지역에서는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라부안 지역 내의 감독당국(The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소보험과 미소타카풀(Microtakaful) 보험계약자 수를 확대하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을 발표하며 미소보험과 미소타카풀 보험계약자 수를 현재 대비 두 배로 확대하고자 함
-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업 관련 대표적인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Perlindungan Tenang’을 꼽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를 사용하여 전통형 보험 및 타카풀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Perlindungan Tenang 프로그램은 2021년 바우처당 50링깃(약 10달러)을 제공했으나 이 같은 금액은 2022년 75링깃(약 15달러)으로 확대되었고, 높은 소비자 호응도를 보이고 있음
 - 소비자는 월 2.09링깃(약 0.5달러)으로 보험가입금액이 10,000링깃(약 2,120달러) 이하에 달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시장은 크게 전통형 생명보험시장과 가족타카풀시장으로 구분됨

가. 전통형 생명보험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569억 링깃(약 121억 달러)이고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실질GDP와 가족타카풀의 성장률 대비 낮음

-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5.7%로, 이는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가족타카풀 성장률(16.2%) 대비 낮은 수치임
 - 가족타카풀의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전통형 생명보험의 성장률은 다소 낮은 상황임
- 2021년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800억 링깃(약 595억 달러)이었으며 영업이익은 63억 링깃(약 13억 달러)을 기록함

〈표 11〉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수보험료	금액	44.7	48.7	50.7	55.5	56.1
	성장률(%)	5.0	9.0	4.1	9.3	1.2
총자산	금액	235.1	254.8	274.0	280.7	-
	성장률(%)	2.7	8.4	7.6	2.4	-
영업이익	금액	3.4	3.6	4.8	6.3	-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변액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단체보험의 증가율이 높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은 변액보험이 59.3%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전통보험(32.0%), 단체보험(8.7%) 순임
 - 말레이시아에서는 저금리 환경이 오랜기간 유지되며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상품의 선호도가 높음
- 2022년 단체보험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해 높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이 밖에도 연금보험이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에 가까움

- 이는 말레이시아 EPF(Employee's Provident Fund) 제도가 사적연금 시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거나, 2001년 연금상품의 불안전판매 이슈로 해당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요인 등이 있음³⁵⁾

〈표 12〉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링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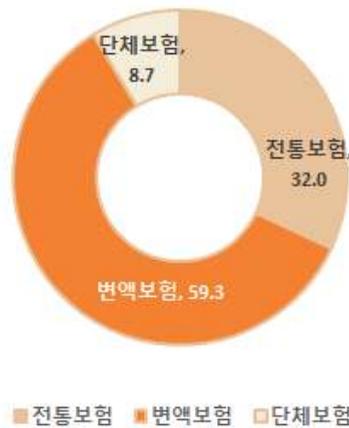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전통보험	18,273	17,938	-1.8
변액보험	32,815	33,309	1.5
단체보험	4,362	4,877	11.8
합계	55,450	56,124	1.2

주: 전통보험은 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 정기보험 등의 합을 의미함

자료: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Malaysia(2022), "Annual Report 2022"

〈그림 2〉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Malaysia(2022), "Annual Report 2022"

-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에는 14개 회사가 존재하며, 주요 보험회사는 AIA, Great Eastern Life Assurance, Prudential Assurance와 같은 외국계 기업임
 - AIA, Great Eastern, Prudential은 모두 외국계 보험회사로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이들 3개 보험회사는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을 각각 25.8%, 22.3%, 18.3%를 차지함
 - 한편 말레이시아 현지 보험회사인 Hong Leong Assurance와 Etiqa Life Insurance 또한 2021년 기준 각각 7.1%와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³⁵⁾ 말레이시아에서 EPF 가입자를 위한 사적연금 상품은 2001년 불안전판매 등의 이슈로 판매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실적은 저조함; Asmuni, Shahrudin and Redzwan(2020), "Value for Money of Retirement Insurance Plans in Malaysia with Consideration of Longevity Factor"; Asmuni & Purcal(2018), "On the study of Malaysia's private annuity"

〈표 13〉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AIA	11,236.1	27.2	11,214.6	25.8	-0.2
2	Great Eastern Life Assurance	9,297.2	22.5	9,674.5	22.3	4.1
3	Prudential Assurance	7,578.7	18.3	7,963.2	18.3	5.1
4	Allianz Life Insurance	2,800.0	6.8	3,116.7	7.2	11.3
5	Hong Leong Assurance	2,843.5	6.9	3,100.0	7.1	9.0
6	Etiqa Life Insurance	1,737.8	4.2	1,936.4	4.5	11.4
7	Tokio Marine Life Insurance	1,346.0	3.3	1,561.1	3.6	16.0
8	Manulife Insurance	927.5	2.2	1,013.8	2.3	9.3
9	Zurich Life Insurance	832.4	2.0	962.3	2.2	15.6
10	Sunlife Malaysia Assurance	801.7	1.9	865.4	2.0	7.9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전통형 생명보험 부문 판매채널별 비중은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그 밖의 채널 비중은 미미함

- 보험설계사는 말레이시아 보험산업 초기부터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2021년 신계약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의 약 2/3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 보험설계사 중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며, 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를 고려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방카슈랑스 채널은 1990년대 이후부터 발전되기 시작했고 2021년 신계약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의 약 1/3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주요 전통형 생명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는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현지 보험회사는 은행이 주도하는 금융그룹 내에서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음
- 보험중개인은 2000년 이전까지 손해보험업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채널다변화 정책으로 생명보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21년 기준 여전히 낮은 비중(약 1.7%)을 차지함
- 재무설계사 비중은 현재 미미한 수준이나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의 판매 방식이 상품 위주에서 소비자 니즈 기반의 금융상담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³⁶⁾
- 온라인을 통한 전통형 생명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며 2021년 신계약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상품의 약 0.1% 정도만이 온라인으로 거래됨

³⁶⁾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발표된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을 통해 재무설계사와 재무설계전문가에게 별도 부여하던 라이선스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특정 보장성 생명보험 상품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는 미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22년 디지털보험회사와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법률 초안³⁷⁾을 발표함

〈표 14〉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험설계사	65.5	64.2	62.5	62.6	64.0
방카슈랑스	30.7	32.0	33.8	33.5	32.5
보험중개인	1.6	1.9	2.0	2.2	1.7
재무상담사	0.2	0.2	0.3	0.3	0.6
직접판매	0.1	0.1	0.1	0.1	0.1
직접마케팅·기타	1.9	1.6	1.4	1.3	1.1

주: 1) 전통형 생명보험 내 신계약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를 포함하고, 직접마케팅은 방카슈랑스 파트너십을 통해 은행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텔레마케팅 혹은 TV 등을 통한 광고활동을 포함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발달된 채권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구성비는 기업증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은 채권시장 혹은 국채·보증대출과 같은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되어 있음
- 이 밖에도 해외자산(6.4%), 현금 및 예금(5.8%), 대출(4.0%) 등으로 자산이 운용됨

〈표 15〉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변화

(단위: 백만 링깃,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증권·채무증권	금액	155,311.0	154,895.9	170,487.1	181,558.7	178,798.9
	구성비	67.9	65.9	66.9	66.3	63.7
국채·보증대출 (Guaranteed loans)	금액	23,294.7	27,551.7	25,842.0	30,533.4	34,585.7
	구성비	10.2	11.7	10.1	11.1	12.3
해외자산	금액	10,970.2	10,400.5	13,534.5	16,704.9	18,069.7
	구성비	4.8	4.4	5.3	6.1	6.4
현금 및 예금	금액	10,135.8	12,008.9	14,754.1	14,668.0	16,342.7
	구성비	4.4	5.1	5.8	5.4	5.8

³⁷⁾ Licensing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Insurers and Takaful Operators

〈표 15〉 계속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출	금액	12,679.9	12,467.3	12,194.0	11,692.3	11,265.8
	구성비	5.5	5.3	4.8	4.3	4.0
투자부동산	금액	2,392.2	3,175.8	3,149.3	3,104.5	3,119.4
	구성비	1.0	1.4	1.2	1.1	1.1
부동산, 발전소 및 장비	금액	2,149.9	2,081.0	2,187.7	2,330.0	2,193.4
	구성비	0.9	0.9	0.9	0.9	0.8
기타	금액	11,926.2	12,502.4	12,607.0	13,398.0	16,274.4
	구성비	5.2	5.3	4.9	4.9	5.8
합계		228,859.9	235,083.5	254,755.7	273,989.8	280,650.0

자료: AXCO(2023),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나. 가족타카풀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시장 원수보험료는 184억 링깃(약 39억 달러)이고 성장률은 실질GDP와 전통형 생명보험 성장률 대비 높은 특징을 보임
 - 가족타카풀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6.2%로, 이는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전통형 생명보험 성장률(5.7%) 대비 높은 수치임
 - 타카풀 보험료가 전통형 생명보험 보험료 대비 일반적으로 10~15% 정도 높은 경향이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가족타카풀은 전통형 생명보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다수의 인구가 무슬림인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타카풀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진적인 이슬람금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민족과 기타 원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무슬림 국가로 이들 민족은 샤리아올법을 따르기 위해 타카풀 상품의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

〈표 16〉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족타카풀	원수보험료	9.8	11.5	12.7	15.9	18.4
	성장률(%)	12.6	17.7	10.5	25.3	15.6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개인일반, 단체일반, 변액(개인·단체) 상품이 비교적 고르게 판매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가족타카풀 상품별 비중은 개인일반, 단체일반, 변액(개인·단체) 상품이 각각 39.4%, 33.0%, 27.6%를 차지함
 - 변액상품은 유닛 차감(Unit deductions)을 통해 사망비나 운영비가 추정가능한 투명한 가격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샤리아올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2년 단체일반 상품은 전년 대비 37.3%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이 밖에도 연금상품은 전통형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족타카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에 가까움

〈표 17〉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상품별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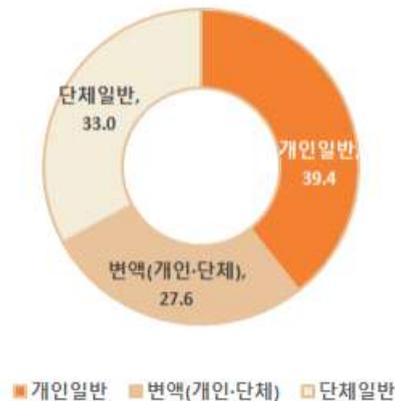
(단위: 백만 링깃,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개인일반	6,040	7,248	20.0
단체일반	4,426	6,076	37.3
변액(개인·단체)	5,452	5,078	-6.9
합계	15,919	18,402	15.6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그림 3〉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시장에는 11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주요 사업자는 Prudential BSN Takaful, Etiqa Family Takaful, Syarikat Takaful임
 - 2022년 순보험료수입(Net contribution income) 기준 가족타카풀시장의 선두 사업자는 외국계 기업인 Prudential BSN Takaful이며 해당 사업자는 전체 가족타카풀시장의 22.1%를 차지함
 - 이 밖에도 현지 타카풀 사업자인 Etiqa Family Takaful과 Syarikat Takaful이 각각 15.6%와 15.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18〉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운영사별 순보험료수입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1		2022년		성장률
		순보험료수입	시장점유율	순보험료수입	시장점유율	
1	Prudential BSN Takaful	2,483	23.0	2,772.2	22.1	11.7
2	Etiqa Family Takaful	1,668	15.5	1,955.7	15.6	17.2
3	Syarikat Takaful	1,655	15.4	1,921.0	15.3	16.0
4	AIA Public Takaful	1,480	13.7	1,700.0	13.5	14.9
5	Great Eastern Takaful	683	6.3	1,127.9	9.0	65.2
6	Sun Life Malaysia Takaful	952	8.8	981.6	7.8	3.1
7	Takaful Ikhlas Family	611	5.7	618.5	4.9	1.2
8	FWD Takaful	420	3.9	487.6	3.9	16.1
9	Hong Leong MSIG Takaful	278	2.6	469.2	3.7	68.9
10	Zurich Takaful	375	3.5	361.3	2.9	-3.7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133;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2),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1", p. 133

○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부문은 전통형 생명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타카풀설계사와 방카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타카풀설계사와 방카타카풀 채널은 가족타카풀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021년 신계약 원수보험료 기준 각각 시장의 42.2%, 28.1%를 차지함
 - 이 밖에도 직접마케팅·기타가 22.7%를 차지하고 보험중개인은 6.9%를 차지함
- 전통형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최근 가족타카풀 부문에서는 온라인이나 타카풀 사업자 판매 네크워크³⁸⁾의 직접방문(Over The Counter; OTC)을 통한 상품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 팬데믹으로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2022년 온라인과 OTC 방식을 통해 발행된 정기가족타카풀 상품의 보험증권 수는 전년 대비 332% 늘어남³⁹⁾

〈표 19〉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판매채널별 비중(2021년)

(단위: %)

구분	비중
타카풀설계사	42.2
방카타카풀	28.1
직접마케팅·기타	22.7
보험중개인	6.9

주: 가족타카풀 내 신계약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38) 타카풀 사업자의 공식지점이나 공인된 타카풀설계사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함

39)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p. 17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은 크게 전통형 손해보험시장과 일반타카풀시장으로 구분됨

가. 전통형 손해보험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194억 링깃이고, 성장률은 일반타카풀 성장률 대비 낮음

-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4%로, 이는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일반타카풀 성장률(12.6%) 대비 낮은 수치임
 - 일반타카풀의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전통형 손해보험의 성장률은 다소 낮은 상황임
- 2021년 기준 전통형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820억 링깃(약 812억 달러), 영업이익은 20억 링깃(약 4억 달러)을 기록함

〈표 20〉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수보험료	금액	17.6	17.4	17.2	17.7	19.4
	성장률(%)	1.9	-0.8	-1.0	2.5	10.0
총자산	금액	33.6	34.8	36.8	38.2	-
	성장률(%)	3.5	3.6	5.9	3.7	-
영업이익	금액	1.1	1.0	1.5	2.0	-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세계은행을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46.2%)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46.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화재보험(19.7%), 해상·항공·운송보험(7.6%), 개인상해보험(7.4%), 의료·건강보험(5.0%) 순임
- 2022년 개인상해보험은 전년 대비 86.6%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표 21〉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링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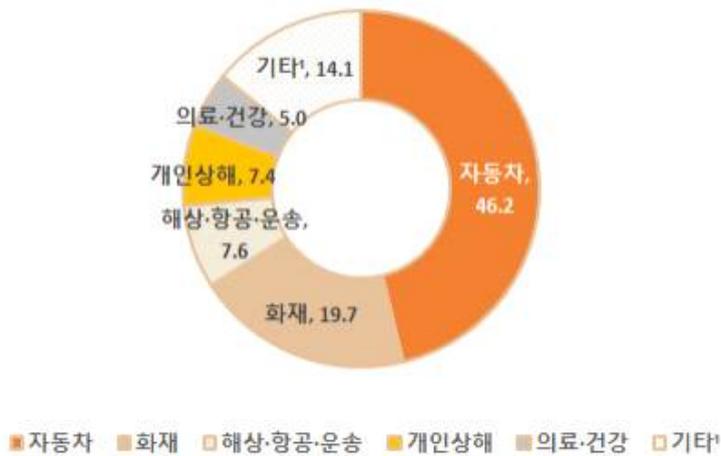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자동차	8,226	8,979	18.3
화재	3,599	3,819	12.2
해상·항공·운송	1,369	1,480	16.2
개인상해	1,000	1,433	86.6
의료·건강	967	976	1.9
기타	2,501	2,741	19.2
합계	17,663	19,428	20.0

주: 기타에는 채권,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18

〈그림 4〉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주: 기타에는 채권,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18

○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에는 21개 회사가 존재하며, 외국계 기업(Allianz General Insurance, MSIG Insurance 등)과 현지기업(Etiqa General Insurance, AmGeneral Insurance, Lonpac Insurance 등)이 시장을 분배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외국계 기업인 Allianz General Insurance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13.5%)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4% 성장함
- 그 뒤로 MSIG Insurance(8.4%), Etiqa General Insurance(8.4%), AmGeneral Insurance(7.7%), Lonpac Insurance(7.7%) 등이 비교적 균등한 비중으로 시장을 분배하고 있음

- MSIG Insurance는 외국계 기업이고, Etiqa General Insurance, AmGeneral Insurance, Lonpac Insurance는 모두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임

〈표 22〉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Allianz General Insurance Company	2,371.7	13.4	2,618.4	13.5	10.4
2	MSIG Insurance	1,470.8	8.3	1,628.8	8.4	10.7
3	Etiqa General Insurance	1,429.3	8.1	1,620.6	8.4	13.4
4	AmGeneral Insurance	1,545.4	8.7	1,499.5	7.7	-3.0
5	Lonpac Insurance	1,437.0	8.1	1,482.6	7.7	3.2
6	AXA Affin General Insurance	1,334.9	7.5	1,412.7	7.3	5.8
7	Tokio Marine Insurance	937.9	5.3	1,143.5	5.9	21.9
8	Berjaya Sompo Insurance	873.5	4.9	1,024.6	5.3	17.3
9	Zurich General Insurance	902.6	5.1	958.1	4.9	6.2
10	MPI Generali Insurans	763.1	4.3	847.6	4.4	11.1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41

○ 전통형 손해보험 부문 판매채널별 비중은 보험설계사(63.8%)가 가장 높고 전통형 생명보험과 달리 직접판매(17.5%)와 보험중개인(14.1%)의 비중 또한 높음

-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주요 채널이며 2020년 기준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에 달함
- 직접판매는 전통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약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형 손해보험회사가 수재한 재보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한 판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지 않은 수준임
 - 말레이시아인은 대면접촉을 선호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텔레마케팅의 비중이 높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팬데믹 이후 특히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 구매 시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졌고 에그리제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⁴⁰⁾
 -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족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온라인 판매 채널의 확산으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직무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음

40) 소비자가 중개업체(보험설계사·보험중개인)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이들 기관에 제공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료 금액을 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음

- 전통형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중개인 채널은 전통형 손해보험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원수보험료 기준 14.1%를 차지함

〈표 23〉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설계사	64.6	65.3	65.6	65.2	63.8
직접판매	17.1	17.1	17.2	17.4	17.5
보험중개인	15.9	14.2	13.9	14.0	14.1
기타	3.4	3.4	3.3	3.4	4.0

주: 1) 전통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전통형 손해보험회사가 수재한 재보험과 전통형 손해보험회사가 관련 산업기관·대기업·금융그룹에 판매한 기업성 보험이나 온라인, 콜센터 등을 통해 판매한 상품을 포함함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나. 일반타카풀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시장의 원수보험료는 46억 링깃(약 10억 달러)이고 성장률은 실질 GDP와 전통형 손해보험 성장률 대비 높은 특징을 보임
 - 일반타카풀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2.6%로, 이는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전통형 손해보험 성장률(2.4%) 대비 높은 수치임

〈표 24〉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타카풀	원수보험료	2.8	3.3	3.5	3.8	4.6
	성장률(%)	8.6	19.1	4.5	10.7	21.1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66.2%)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일반타카풀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66.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화재보험(18.2%), 개인상해보험(8.0%), 해상·항공·운송보험(0.7%), 의료·건강보험(0.3%) 순임
 - 2022년 개인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표 25〉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링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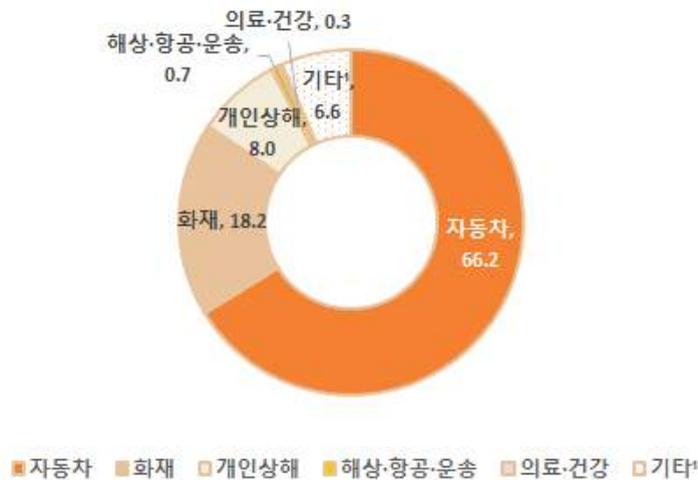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자동차	2,542	3,070	20.8
화재	683	844	23.6
해상·항공·운송	309	369	19.4
개인상해	22	34	54.5
의료·건강	24	16	-33.3
기타	247	305	23.5
합계	3,828	4,638	21.2

주: 기타에는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24

〈그림 5〉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주: 기타에는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24

○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시장에는 4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주요 사업자는 현지 기업인 Etiqa General Takaful임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일반타카풀시장의 선두 사업자는 현지 기업인 Etiqa General Takaful이며 해당 사업자는 전체 일반타카풀시장의 45.7%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0.2% 성장함
- 이 밖에도 현지 사업자인 Syarikat Takaful(25.3%), 외국계 사업자인 Zurich General Takaful(17.5%), 현지 사업자인 Takaful Ikhlas General(11.4%)이 시장을 분배함

〈표 26〉 말레이시아 일반타카ful 운영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1		2022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Etiqa General Takaful	1,720.5	45.3	2,068.8	45.7	20.2
2	Syarikat Takaful	917.4	24.2	1,144.2	25.3	24.7
3	Zurich General Takaful	688.8	18.2	793.5	17.5	15.2
4	Takaful Ikhlas General	467.9	12.3	515.6	11.4	10.2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79

○ 일반타카ful은 주로 타카ful 사업자의 지점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채널과 설 계사를 통해 판매되기도 함

- 타카ful 사업자는 공식지점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장소(Over The Counter; OTC)에서 타카ful 상품을 직접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온라인을 통해 전통형 보험 및 타카ful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중개업체에 전달되는 수수료분만큼 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에는 약 12,000명의 일반타카ful 설계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 고령 화가 진행 중이고, 온라인 채널 발달로 신규설계사의 시장 진입 동기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IV

시사점

-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중진국 함정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중임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다민족 국가이며 영토 내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서비스업, 산업, 농업과 더불어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국가임
 -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꼽히는 이슬람금융의 규모는 세계 3위, 아시아 1위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 최대 발행국임
 - 다만 장기집권층의 부정부패, 낮은 인건비로 인한 두뇌 유출 현상, 친 말레이계(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한 인종 차별 문제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
- 보험 감독 당국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보험침투도 제고 및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목표로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중임
 - 금융 부문 청사진의 주요 목표는 보험 및 타카풀의 보험침투도를 4.8~5.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미소보험 및 미소타카풀 개인 가입자 수를 약 두 배로 확대하는 것에 있음
 - 동 청사진에는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이 포함됨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타카풀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해당 시장의 보험료 성장률이 전통형 보험시장의 보험료 및 실질 GDP 성장률에 비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타카풀시장 중에서도 생명보험업에 속하는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저자약력

이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sj_lee@kiri.or.kr

장윤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 연구원
E-mail : yunmi.jang@kiri.or.kr